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3월 3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30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'20. 3. 30.(월)/총2매	담당부서	전력산업과
담당과장	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윤요한 과장(044-203-5150)	담 당 자	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황현배 사무관(044-203-5158)
	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김현태 과장(044-200-5710)		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문미희 서기관(044-200-5720) 김선형 사무관(044-200-5721)

발전용 유연탄 운송사업자 선정 때 종합심사낙찰제 도입

- 기술력·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평가 -

- 연내 발전5사 전체로 시범사업 확대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와 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**'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'**을 **3월 31일**부터 **한국서부발전**을 시작으로 발전 5개사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○ **종합심사낙찰제**란 가격뿐 아니라 **기술력, 기업의 사회적 책임** 이행 등을 **종합적으로 평가**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, 2016년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되었으며,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.

□ 그 동안 발전 공기업들은 **발전용 유연탄 수입**을 위해 **해상 운송 사업자**를 **선정**할 때 **가격 위주로 평가**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다. 이로 인해 선사 간 **지나친 경쟁**으로 원가 이하로 계약하는 덤핑 수주의 악순환이 반복돼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 화물의 안정적 수송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.

○ 이에,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운송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**'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도입'**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**단계적 도입**을 추진하고 있다.

□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전 공기업은 기존의 가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**해상운송 사업자의 전문성** 등 용역 **수행 능력**과 **가격**을 **종합적으로 평가**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.

○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인력고용, 불공정 고용관행 위반 등 **사회적 책임이행 여부**와 입찰담합, 계약이행 지연, 인력·선박 투입 계획 위반 등 **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**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다.

□ **한국서부발전**은 **3월 31일 러시아~태안, 호주~태안** 간 2개 항차의 유연탄 운송 현물용선 입찰에 **최초로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**을 시행하며, 남동 · 남부 · 동서 · 중부발전 등 나머지 **발전 4개사도 모두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추진**할 예정이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**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**하여 종합심사낙찰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.

○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“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**선사**는 **전문적인 운송능력**을 강화하고 **발전사**는 **원료의 안정적 공급**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며 “발전사와 선사 간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황현배 사무관(☎ 044-203-515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